

강기정 시장-이정효 광주FC 감독 '우정 빛났다'

6연패 늪서 탈출 최근 2연승
羨, 성적부진때 편지로 위로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노력"
李 "힘이 났다... 감사한 마음"

지난 1일 제주 서귀포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 제주유나이티드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10라운드 원정 경기. 52일 만에 6연패 탈출에 성공한 광주FC 선수들이 환호를 질렀다. 구단 역사상 최다 연패의 늪을 탈출한 것과 동시에 최하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날 승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보이지 않았다. 광주FC 구단주인 강 시장은 홈경기뿐만 아니라 서울, 전주 등 원정 경기까지 직관하며 팬들과 함께 응원하기로 유명하다.

실제 지난 3월2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 광주FC와 FC서울 홈 개막전 관람에 이어 3월10일 강원FC전, 3월31일 대구FC전, 4월3일 인천유나이티드전, 4월27일 수원FC전 등 홈경기, 4월1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 모터스와의 원정 경기를 찾았다.

특히 이번 제주 경기의 경우 연패에 빠진 광주FC를 격려하고자 원정 응원이 예정됐었다. 그러나 결국 취소됐다. 호사가들은 "광주시장이 질책한 것 아니냐"는 소문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여기에는 뒷 이야기가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연패에 시달렸던 지난달 말 이정효 광주FC 감독에게 '중꺾마' 제목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 강 시장은 "기대가 많겠 부풀어 오를 광주FC 팬들의 간절한 승리 염원"

연패 중 선수들이 기죽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듬뿍 담긴 편지의 기운 덕분에 힘이 더 났다



강기정(오른쪽) 광주시장과 이정효 광주FC 감독이 지난 3월22일 광주시청에서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오른쪽 작은 사진은 강 시장이 이 감독에게 보낸 편지.

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겠다"며 "구단주인 저도 광주시민도 신뢰의 힘으로 기다릴 수 있다"고 위로했다.

이어 "올 시즌 어떤 성적표를 갖더라도 감독님과 광주FC를 향한 애정은 식지 않을 것이다. 감독님께서 눈치 보지 않고 다양한 전략 전술을 시험하면서 묵묵히 이 시즌을 견뎌주시리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강 시장은 "언제나 부족한 재정과 열악한 환경임을 미안해하는 구단주가 지지를"

받아 편지를 보낸다. 변함없는 응원으로 함께하겠다"고 했다.

강 시장의 응원에 광주FC는 승리로 답했다. 제주유나이티드에 3대1로 승리했고, 지난 6일 대전하나시티즌에 2대1의 승리를 거머쥐었다.

강 시장의 광주FC와 이정효 감독에 대한 애정은 평소에도 각별하다.

기자들과의 자리에서도 "이 감독은 국가대표급"이라고 치켜 세우거나 "이 감독이 있어서 광주FC가 살아나고 있다" 등

부족한 재정과 열악한 환경임을 미안해하는 구단주가 지지를 담아 편지를 보낸다. 변함없는 응원으로 함께하겠다

긍정적인 발언을 아끼지 않았다.

강 시장은 이 감독의 축구 방식을 행정에도 도입하려고도 했었다.

강 시장은 시청 공무원들에게 이 감독의 '공격 축구' 방식을 예로 들며 "광주FC의 목표는 1위가 아니라 팬과 시민들의 즐거움이다. 지고 있을 때도 이기고 있을 때도 이 감독과 선수들은 보는 이들의 즐거움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며 "행정 또한 시민들의 행복 찾기에 나선 대표 선수들 만큼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중 꺾 마!

이정효 감독님께 얼마나 고심이 크신지요? 기대가 많겠 부풀어 오를 광주FC 팬들의 간절한 승리 염원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우시겠지요.

그러나 구단주인 저도 광주시민도 신뢰의 힘으로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어떤 성적표를 갖더라도 감독님과 광주FC를 향한 애정은 식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오랜 기다림을 시작할 것입니다.

오전의 패배가 다음 광주FC 경기에 양분이 될 것임을 알기에 감독님께서 눈치 보지 않고 다양한 전략 전술을 시험하면서 묵묵히 이 시즌을 견뎌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속한 정치의 영역도 고난 극복의 서사가 훗날 강력한 지지의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연패가 나중 통쾌한 승리의 맛을 보는데 이어질거라 믿는 것만을 꼭 믿으며, 언제나 부족한 재정과 열악한 환경임을 미안해하는 구단주가 지지를 담아 편지 드립니다.

4월 27일 홈경기도 부담 없이 피고 싶은 전술 다 써가며 애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변함없는 응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광주FC 파이팅!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광주FC 구단주

전남도, 마늘 2차 생장·매실 저온피해 '농업재해' 인정

13일까지 정밀조사 실시

전남도는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마늘 2차 생장(별마늘) 피해와 매실 저온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받음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피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월 평년보다 강우가 49% 늘어나고, 일조량은 24% 줄어들어 마늘 2차 생장 발생률이 평년(2% 내외)의 17배에 달하는 30~40%가량 발생했다.

또 2월 저온현상으로 매실의 수정 불량, 꽃잎 고사 등에 따른 착과 불량률이 30~

50%정도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마늘 2차 생장(별마늘) 피해와 매실 저온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 반영돼 피해조사를 진행한다.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갖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피해 접수 받은 읍·면·동에서는 피해 농가, 마을 이장 등과 합동으로 피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다.

복구비는 피해 정도에 따라 1ha(3000평) 기준 농약대 평균 250만원, 대파대 550만원을 지원한다.

피해율에 따라 50% 이상 농가에는 생

계비와 농업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등)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 지원, 고교생 학자금 감면 등도 이뤄진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피해 농가가 빠짐없이 신고해 조사에 누락되지 않길 바란다"며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농협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함께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

PERON 엑스페론